

군대 내 성폭력 피해 병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 동 광

한양대학교 / 학생

하 정 희†

한양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전역자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성폭력과 관련된 어려움, 군대 내에서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전역 이후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 성폭력의 양상, 성폭력 이후의 경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까지 총 4개의 영역이 도출되었고, 이하로 총 10개의 범주와 38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요소로 적극적인 인지적 대처, 주변인과의 대화를 통한 지지의 수용, 신체활동,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된 성폭력 경험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군인, 성폭력, 경험, 적응과정, 합의적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서동광(2019)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하정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Tel : 02-2220-2613, E-mail : hajung366@hanyang.ac.kr

일과만과로 찢어진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사회가 가진 성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왜곡된 성지식, 부적절한 성태도와 성행동이 낳은 문제는 하나 둘씩 기사를 통해 드러났고, 너도 나도 그림자처럼 어둡게 두어왔던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믿었던 관료나 연예인 등 저명인사들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들과 직장이나 학교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의 일들까지, 성문제는 이미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그 문제가 드러날 때의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배신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은 문제의 성격이 약자를 향한 것일수록 쓰나미처럼 크게 일어났고, 성문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죄목으로 입건된 입건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하였다(통계청, 2018). 물론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은 많다. 그리고 사건마다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도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기반성과 검열이 촉구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성의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커졌다. 강수연(2001)은 성경험의 연령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것과 무분별한 성경험이 난무하는 형태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성고민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육체적 성장에 의한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Havighurst, 1972), 아직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성 욕구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성 이슈에 대한 피해는 개인을 넘어 고스란히 사회의 다수에게 전이될 위험을

가지기에, 사회에 등장하기 직전에 있는 청소년은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민국 군인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청소년에 해당된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한다. 이 중 청소년 후기(19세~24세)를 청년기나 성인초기 전환기로 부르기도 하는데(장은희, 2006), 대한민국 입대 장병 95% 이상이 19세에서 21세의 연령에 해당되는 점(통계청, 2014)을 고려해본다면 군인들은 그야말로 사회에 나오기 직전에 있는 막바지 청소년들이다. 이 시기에는 누구나 심리적인 혼란이나 갈등, 성적 혼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때에 성에 대한 가치관도 형성하게 된다(김기인 외, 2010). 성호르몬의 분비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느끼면서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것 같은 입장에서 심한 심리적 혼란도 경험한다(김미경, 2000). 한편으로, 군인 대다수의 성별은 남성에 해당되어 그들이 지닌 성문제의 위험도를 높게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지식 수준이 남자가 여자 보다 낮은 반면에 성충동과 성폭행을 비롯한 성태도 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배성미, 2002)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이며, 남자의 경우 성 욕구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강수연, 2001)와도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선배나 친구처럼 부정확하고 사적이기 쉬운 경로를 통해 성지식의 상당 부분을 얻고 있다는 남자 청소년들의 보고는(강수연, 2001; 김경희, 권혜진, 정혜경, 2004)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성관련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또래집단에서 보이는 동조 경향으로 인해 군대 내외의 성매매, 성관계 등은 점점 개방화 되었고(김신현, 2010), 스트레스의 원활한 해소가 어려운

군의 조직적 특성은 원초적인 성욕을 자극함으로써 성 담론의 일상화와 성욕의 행위 중심적인 표출을 자극하기도 하였다(장필화, 1999). 고로, 성에 대한 여러 고민이나 갈등, 미해결된 과제를 안고 있는 남자 청소년들이 집합체가 되어 생활하게 되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병사들은 일반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성 이슈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행위를 말한다(오봉욱, 2014, a). 성폭력의 범위나 유형에 있어서 그 견해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성폭력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였는가, 즉, 행위에 대한 강제성 유무이다(손기화, 2012). 또한 여기에는 신체적이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성 간의 행위뿐 아니라, 동성 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성폭력이 가져오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유증은 불안과 두려움인데, 생명이 위협받는다든 두려움과 함께 성폭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극이나 물건(남성의 성기 모양, 거친 외모의 사람 등)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폭력 재발에의 취약성(뒤에 사람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낯선 장소에 있을 때 등)에 힘들어한다. 깜짝 놀라는 반응, 정서적 반동, 악몽 등도 발생 가능한 불안의 다른 증상들이다(이원숙, 2001). 또한 피해자는 ‘손상된 물건 증후군’으로 설명되어지는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생각(Suzanne & Sgori, 1982)과 함께

수면 및 식사장애, 피로감, 울음, 자살적 관념, 무가치감, 절망, 죄의식으로 표현되는 우울증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천대윤, 1999), 성 피해 청소년들이 낮은 자존감(채규만, 정민철, 2004)과 혼란된 성적 지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MacDonald, Lambie & Simmons, 1995), 그 외에도 사회적응, 성적기능상의 문제, 감염이나 상해와 같은 신체적 문제도 우려된다(김선아, 2002). 이 모든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후유증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박가람, 2008; 손기화, 2012; Finkelhor & Browne, 1985).

군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정도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군대 내에서는 신고 이후에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2차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클 수 있고, 동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수치심을 이유로 신고를 꺼린다는 사실이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많은 피해군인을 예상하게 만든다(김지현, 2013). 성 피해가 심각할수록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져 성폭력 재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Briere & Runtz, 1987)도 고립된 조직에서의 취약성이 되고, 부모와 친구 등 중요 타인과의 고립에서 오는 소외감, 외로움 등의 심리적 기제도 함께 작용되어(윤종영, 2009) 군대 내에서의 성문제는 미해결 문제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명하복’이라는 군 문화는 장교와 병사, 병사와 병사 사이에서 선후임의 위계로 인해 처해지는 명령방식인데, 이것이 악용되어 상급자에 의한 성적인 계급폭행으로 지속되기도 하였다(오봉욱, 2014, b). 게다가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와 사기를 저해시키는 성

군기 위반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군인과 집단 전체에 해를 주고(손기화, 2012), 친밀감이나 장난으로 미화시키는 가해자 중심논리는 군이 가진 위계의 엄격함 속에 더욱 뿌리가 깊게 박혀 일반사회의 여성과 같은 다른 대상에게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권인숙, 2004). 현역 때의 부대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의 적응 및 취업의 기회 제한과 부부관계 및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김혜래, 이혜원, 2006)은 성폭력 문제가 군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군대 내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처벌(형사입건)을 받은 병력이 1,345명에 달한다. 이는 연간 384명에 이르는 수치이며, 군의 특성상 문제를 사건화시키지 않고 부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실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손기화, 2012).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았던 군인은 1279명이었다(조경철, 2018). 이와 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적지 않은 문제의 발생 빈도와 비교해 현재 국내에 군대 내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마저도 성폭력의 발생 현황, 관련 정책이나 법 등 외적인 실태를 알아보는 연구들(곽용철, 2007; 주승희, 2015)이 많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내적 경험을 상세히 풀어놓고 알아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범죄는 한 개인의 심리적인 역동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피해에 따른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타격이 매우 다양하고 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대라는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권력의 위계가 강조된 환경에 처해있기도 하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일반사회에서의 그것보다 다양한 이슈를 낳을 수 있기에,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의 속내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은 절실히 보인다. 실제로 군대에서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실정을 보완하여 성폭력을 경험한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한 정보수집과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기본적인 연구 논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둔 양적 연구는 세상의 실체와 법칙이 인간의 인식 밖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에 가설의 부단한 수립과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세상은 경험세계의 전통 속에서 부단히 재구성하며 나가는 것이기에 서로 다른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홍월 외, 2013). 이러한 기에 기존의 양적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질적 연구는 성폭력 문제를 겪었던 개인의 경험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구조화 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한 단답형 식의 답변이 아닌, 연속적인 의식 흐름에 기반 한 사고와 감정의 상세하고 생생한 기억의 자료들을 수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자연스러운 사건의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을 탐구한다는 질적 연

구만의 장점을 살려 군대 내에서 겪은 성폭력의 경험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폭력 문제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이후의 경험과 함께 전역 이후로까지 이어진 경험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였다. 이로써 시간이 나 상황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폭력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 성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상당부분에서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해왔다(김지혜, 2011). 그러나 성폭력을 겪은 이후의 회복이나 적응과정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존재라는 점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았다(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2008). 즉,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받는 피해자의 수동성이 많이 강조된 반면, 피해자들이 어떠한 주체적인 행위나 노력을 통해 문제에 대처해 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적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피해자의 삶의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른 폭력의 경험보다 유독 성폭력 경험의 피해자로만 인식되는 것에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는 연구결과(한인영, 김진숙, 김선민, 2008)는 성폭력을 유독 나쁘고 치명적인 경험으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풍토 역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지혜, 2011). 하

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며, 미미한 피해 증상만을 호소하거나 잘 극복하여 아무런 탈 없이 생활에 잘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한노을, 2008; Wright, Crawford, & Sebastian, 2007). 고로, 본 연구에서도 새로운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생활에 대한 적응과정은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회복은 심리적 증상의 완화(Bonanno, 2004),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Burt & Katz, 1988), 안전한 외부 세계와의 연결(Herman, 2007) 등으로 묘사될 수 있고, 적응이란 스트레스 상황 및 고위험 상황에 노출된 개인이 심리적인 장애나 사회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보다 보호요인의 작용을 통해 위협과 역경을 유연한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박현선, 1998; 신현숙, 2004; 유성경, 심혜원, 2002; Garnezy, 1993). 그리고 이러한 적응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최혜란, 2009).

특히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적응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김동욱, 2017), 본 연구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의 경험과 그것의 영향,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 분야에서 대상의 내적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져 오던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통해 군에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의 어려움과 일상으로의 적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CQR은 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자 맥락을 통해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Hill, Thompson, & William, 1997). 분석팀은 참여자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합의하고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하기에 용이하다(Hill, 2016). 또한, 참여자들의 시각으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사건들을 맥락에서 해석하고 경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며(손승희, 2019), 특히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적합하다(이희운, 2017). 이에 본 연구는 소수의 사례에 집중하여 참여자들인 성폭력 경험 병사들의 시각으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건들을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CQR이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되어 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해결 중심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시선을 재점검하고, 보호요인의 발견과 실질적인 도

움 제공에 미흡했던 군 성폭력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점(신영수, 2016)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군대 내에서 겪었던 성폭력과 관련된 어려움은 어떠하였는가?’, ‘성폭력을 겪고 난 이후의 군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성폭력을 겪고 전역을 한 이후의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성폭력 경험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은 어떠하였는가?’라는 총 4가지의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질적 연구에서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적절성’은 주제에 가장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줄 참여자를 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은 현상에 대하여 풍부한 설명이 되기 위한 자료가 포화상태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2018년 기준)

구분	성별	연령	복무 시기	복무 군대
• 참여자 1	남	28세	4년 전	육군
• 참여자 2	남	26세	2년 전	해군
• 참여자 3	남	25세	2년 전	공군
• 참여자 4	남	23세	6개월 전	육군
• 참여자 5	남	28세	5년 전	육군
• 참여자 6	남	29세	5년 전	육군
• 참여자 7	남	25세	1년 전	육군
• 참여자 8	남	25세	2년 전	육군
• 참여자 9	남	23세	1개월 전	육군
• 참여자 10	남	25세	1년 전	해군

다다를 때까지 충분히 수집되는 것을 말한다(Estabrooks, Field, & Morse, 1994).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대학교 커뮤니티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로 모집되었고, 군대 내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듣기 위하여 갓 전역한 자부터 전역한 지 5년 이하에 해당되는 자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주제에 따라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경험은 동성 간의 성폭력으로 한정하여 선정기준을 두었고, 다양한 부대에서 복무한 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대학원 및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군 복무 당시 성폭력을 겪었던 10명의 20대 성인 남성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면담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와 합의된 위치의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총 10명의 참여자에게 실시되었으며, 면담 전 연구의 취지와 목적, 면담의 시간, 개인정보와 내용의 비밀유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설명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면담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 녹음 본은 전사하여 원자료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준수한 연구 윤리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였다. 1차적으로, 면대면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단지 배포의 간접적인 홍보를 통

해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렇게 만나게 된 신청자에게는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용도, 정보보안 등의 내용을 구두와 설문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의 저장을 위한 녹음기의 사용도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고, 면담 시에는 녹음기의 위치를 참여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어 부담감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한 확인과 기타 질문을 받음으로서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성폭력 문제의 발생시기가 최소 6개월 이상 지났고, 문제가 발생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군 전역자’를 선택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 직후에는 고통이 극심할 수 있음과 가해자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여야 함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면서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과 겪었던 문제 사이에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분리가 되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셋째, 면담의 장소는 스터디룸이나 인적이 드문 카페를 선택해 일대일의 조용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참여자가 연구와 관련이 없는 타인을 의식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켰다.

넷째, 평정팀으로부터 최종 확인 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제시함으로써 참여자가 면담의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고, 중립적 입장의 문구와 개방형 질문을 위주로 제시함으로써 참여자에게 답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주었다. 반구조화 된 질문지의 질문에는 “군대 내에서 겪었던 성폭력과 관련된 어려움은 어떠하였는가?”, “본인이 지각한 가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어떠하였는가?”, “사건의 처리과정은 어떠하였는

가?”, “성폭력을 겪고 난 이후의 군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성폭력을 겪고 전역을 한 이후의 영향은 어떠하였는가?”,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은 어떠하였는가?” 등이 있다.

다섯째,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한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 사안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룸으로 참여자가 불편감을 가지게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인터뷰 과정의 중간 중간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보고가 어려운 내용이나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재차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답변이 인터뷰를 지속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만 면담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여섯째, 면담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 참여자가 지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면담은 약 1시간 내외로 정하였다. 특별히 참여자의 보고가 긴 경우에만 최대 1시간 30분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일곱째,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언제든 인터뷰나 연구의 참여 자체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중단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고, 중단 요청은 참여자의 권리이면서 이를 따르는 것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여덟째, 정보의 저장과 내용의 수록과정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지칭될 수 있는 정보의 사용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개인에 대한 지칭이 어려운 표식(참여자, 육군, 남성 등)만을 사용해 내용의 출처를 보안성 있게 표기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반구조화 된 질문을 가지고 각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한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것을 축어록으로 풀어내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평정자들은 각 사례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요 영역을 조직화하였고, 각 영역에서 핵심개념을 찾고 요약하였다. 공통적인 핵심개념은 범주화를 한 후에 합의와 수정의 과정을 거치는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감수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보고된 특수한 경험적 자료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준다(신영수, 2016). 본 연구의 CQR 분석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정팀’을 먼저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 참여한 평정팀은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 CQR로 작성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상담심리학 석사 1인, CQR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중인 대학원생 1인, 그리고 본 연구자까지 총 4인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자 중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2급의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있고, 평정자 모두는 현재까지 개인상담을 비롯해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심리적 지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군인들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평정팀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의 개발에서부터 영역과 범주의 구성, 교차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분석팀은 우선 개별적으로 축어록을 분석하였고 이후 모여서 일치 및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이 때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계속적

으로 토론을 하여 분석팀이 모두 합의를 한 이후 다음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삼각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영역 범주화’의 과정이다. 영역범주화는 수집된 자료를 유사한 주제들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개별 영역을 분류한 뒤에 일치와 불일치를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초기 영역은 부호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새 영역이 생성되거나 일부가 삭제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영역목록을 평정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영역이 구성되었다. 첫째는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 둘째는 ‘성폭력의 양상’, 셋째는 ‘성폭력 이후의 경험’, 넷째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용과정’이다.

셋째, ‘핵심개념 구성’의 과정이다. 핵심개념의 구성은 면담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으로, 원 자료를 간결하게 정리하되 본질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원 자료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Hill, 2016). 본 연구에서도 평정팀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면담의 상세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적인 신념이나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팀은 본격적인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 연구주제에 대해 각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 2시간 동안 함께 논의하였고 자유롭게 결과를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도 성폭력 관련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상호 피드백을 주되, 동시에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감수자의 감수를 통해 핵심내용의 반

영성과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감수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분석팀에서 다시 합의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넷째, ‘교차분석’의 과정이다.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영역에 대한 핵심개념을 범주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분석은, 각각의 참여자로부터 얻어진 언어자료의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이다. 분석팀은 모두가 모여 사례를 가지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범주를 구성하였고, 이후에 각자 모든 사례의 영역과 요약 반응들을 검토해나가면서 공통 주제를 확인하면서 범주를 수정하고 확장하였다. 다시 모여서 각자가 구성한 범주에 대해 적절성을 살펴보고 토론하여 수정하는 합의과정을 거쳤다. 합의 과정을 통해 범주의 특성이 불분명한 경우 범주들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였고, 범주의 공통 특성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범주 명을 수정하는 등 범주 구성을 정교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를 통해 핵심개념은 원 자료가 가진 의미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면서 가독성이 있는 요약된 형태로 정리된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빈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빈도는 확정된 하위범주가 전체 사례 중에서 얼마나 빈번히 적용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하위범주가 모든 참여자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 되거나, 1명만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로 구성되었을 때 이를 ‘일반적’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5명에 해당되는 절반 이상의 참여자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된 하위범주는 ‘전형적’으로, 적어도 2명 이상의 참여자에게서 나온 자료로 구성된 하위범주는 ‘변동적’으로 명명하였다. 1명의 참여자에게서 나온 하위범주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대부분 삭제하였으나 그 중 분석팀 간 반복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로 판단된 하나의 하위범주에 대해서는 ‘변동적’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제 고발을 한 경우이다.

다섯째, ‘자문과 감수’의 과정을 거쳤다. 합의적 질적 연구(CQR)에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문을 두기를 권한다(Hill, 2016). 본 연구에서는 감수자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을 소지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의 지도 경험이 다수 있는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을 선정하였다. 감수자는 분석의 전 과정 동안 합의적 질적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습지도 경험에 비추어 합당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었고, 평정팀은 이를 참고하여 논의하고 결과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결 과

군대 내에서 겪은 성폭력과 관련된 어려움과 그 이후 군생활이 어떠한지, 전역 후 영향이 어떠한지,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면접 자료를 CQR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에서는 2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범주, ‘성폭력의 양상’에서는 3개의 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성폭력 이후의 경험’에서는 2개의 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에서는 3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를 표 2에 제시하였고, 참여자들의 자기보고를 통해 얻은 각 하위범주의 대표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다음에 설명하였다.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은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성폭력 경험 병사들이 지각한 가해자 특성의 2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하위범주들이 모두 ‘일반적’, ‘전형적’ 빈도로 분류되어 성폭력 경험 병사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공간에 있음’과 ‘피해사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가 비난을 받음’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공통적인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이 빈번한 환경’은 피해자들이 억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고발에 대한 용기를 내기가 더욱 어렵게 했을 것으로 해석되고, 절반의 연구 참여자는 비밀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군 상담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공간에 있음

회사나 학교나 군대나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는 24시간인거죠. 회사나 학교는 집에라도 갈 텐데. (참여자3)

- 피해사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가 비난을 받음

누구한테 밀고하면은. 누구한테 알려거나 하면은. 그니까 가해자가 혼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왜 너가 말을 했냐 이런 특성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

표 2. 연구 결과표

영역	범주	하위범주	빈도
1.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공간에 있음	일반적(10)
		• 피해사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가 비난을 받음	일반적(9)
		• 간부가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에 서있음	전형적(8)
		• 폭력(언어적, 신체적)이 빈번한 환경	전형적(7)
		• 상담에 대한 신뢰가 없고 비밀보장이 어렵게 느껴짐	전형적(5)
	권력의 위계에 의한 가해 행위	• 병사들 중 선임에 해당	일반적(9)
		•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시도함	변동적(4)
		• 육체적인 힘이 강함	변동적(3)
		• 동성에 성향이 느껴짐	변동적(3)
		• 가해자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음	변동적(2)
2. 성폭력의 양상	성폭력의 유형	• 신체적인 접촉을 함	전형적(7)
		• 원하지 않는 음담패설을 함	전형적(6)
		• 음란한 행동을 지시함	변동적(2)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	• 생활관	전형적(8)
		• 근무지	전형적(5)
		• 샤워실	변동적(3)
		• 여가시설	변동적(2)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	• 피해사실을 고발하지 못함	일반적(9)
		• 피해사실을 고발함	변동적(1)
	3. 성폭력 이후의 경험	군대 내에서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 피해 직후 수치심이 강하게 들
•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일반적(9)
• 문제의 재발에 대한 예기불안			전형적(5)
• 일상에서 무기력감을 느낌			변동적(4)
• 거부감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변동적(3)
•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			변동적(3)
•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짐			변동적(3)
전역 이후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관련된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름	전형적(6)
		• 동성과의 대인관계가 불편해짐	변동적(4)
		•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온 것에 대한 거부감	변동적(4)
		• 평범한 이성들과의 성 문제에 대한 예민성이 증가함	변동적(2)
4.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	인지적 노력	•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형적(6)
		• 가해자 또는 본인의 전역 날을 희망으로 삼음	전형적(6)
		• 아픔을 통해 깨달음	변동적(4)
	행동적 노력	• 주변인과의 대화로 위로를 받음	일반적(9)
		• 운동을 열심히 함	전형적(5)
		• 가해자를 피하려고 노력함	변동적(4)
		•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해소함	변동적(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통이 덜해지는 것을 느낌	변동적(4)

고. (참여자2)

저 있을 때는 그거(비상 전화) 쓰는 애 한명도 없었어요. 다 알잖아요. 그거 하면은 남은 군 생활 병풍처럼 살아야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참여자10)

- 간부가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에 서있음

근데 그 사례들을 고발한 사람이 제3자인데 그 사람을 행정보급관이 안거예요. 마음의 편지 쓴 고발자를 털었어요. 흔히 말하는. 야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했을 텐데. (참여자1)

뭐 마음의 편지라고 하죠. 그런 거를 쓰면 예를 들어서 “OO병장이 저를 괴롭혔습니다.”하면 저한테 와요 그 마음의 편지가. 그니까 가해자를 찌른 편지를 가해자한테 보내요. (참여자6)

가까이 하면은(피해자랑 친하게 지내면) 너네 이제 집합시켜서 욕하고 어떻게 한다. 선임도 그렇고 간부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군부대라 문제 같은 거 덮으려고 하고, 문제 터지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거는 그 사람들이고. 선임은 군 생활 며칠 더하면 끝이지만 간부들은 커리어에 흠이 가는 거니까. (참여자9)

- 폭력(언어적, 신체적)이 빈번한 환경

뭐 이렇게 얼굴은 못 때리고 로우키를 한다던지. 뭐 엉덩이를 발로 찬다던지. 머리를 이렇게 때린다던지. 방탄 이렇게 쓰면 파이프렌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때린다던지. 주먹으로 몸통 같은데 때리기도 하고, 미는 거는 뭐 다반사고.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거죠 화가 나니까. 뺨 때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다행히도 뺨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6)

선임이었는데 몸을 계속 더듬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이거 성희롱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막 토라지는 거예요. 빠져 가지고. 그리고 몇 시간 뒤인가 저녁쯤에 저희는 예전 군문화가 좀 많이 남아 있던 부대라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 아래 위에 기수까지 포함해서 집합을 시키죠. 언제부터 일 이병이 감정표현을 했냐 하면서.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래위로 해서 다 이제 욕설을 하고. 그리고 뭐 선임들이 뭐 예뻐해 주니까 니가 뭐라도 된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참여자9)

- 상담에 대한 신뢰가 없고 비밀보장이 어렵게 느껴짐

그냥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저한테 오는 피해들이 “아 너네 부대에 OO인 애가 말했어.”라는 익명성 보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열외 당하고. 저한테

돌아오는 피해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참여자1)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거든요. 어떻게 익명성을 보장하느냐. 군대 안에 소문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 소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100이 있으면은 99가 익명성일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익명성이. 왜냐하면 상담을 신청하는 군인들이 가장 불안에 떠는 게 내가 만약 상담을 하면은 다른 부대원들이 알지 않을까. (참여자2)

근데 그게 이제 선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보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상담을 했다더라 뭐 이정도로 다 퍼지고. 그럼 가가지고 야 상담 했냐 뭐 이런 느낌이나. (참여자4)

권력의 위계에 의한 가해행위

가해자가 병사들 중 선임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참여자는 10명 중 9명이었으며, 나머지 1명 또한 가해자가 간부였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은 나이, 지위, 계급 등 권력의 위계에 의존한 가해행위로 그 모습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병사들 중 선임에 해당

그 사람은 계급이 두 기수 높았으니까 두 달 더 빨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두 기수밖에 안 높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는데 군대 안에서 그 사람이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형 취급을 많이 받았거든요. (참여자2)

직접적인 선임이 아닌 선임인데 이 사람은 중대에서 계급이 거의 젤 높은 사람이었어요. (참여자6)

성폭력의 양상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성폭력의 유형 중 직접 신체접촉이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로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생활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라도 언제든 심각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폭력의 유형

참여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성폭력의 유형은 신체적인 접촉과 원하지 않는 음담패설,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지시한 것이었으며, 이 중 신체적인 접촉과 원하지 않는 음담패설을 했다는 경우가 참여자의 과반수에게서 보고된 성폭력의 유형이다.

- 신체적인 접촉을 함

활동복 속에 손을 넣으려고 했어요. 바지 속에 딱 만지려고. 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진짜 너무 짜증나는 진짜로. 충격이죠? “야 가만있어.” 막 이려고. “아 진짜 좋으면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참여자1)

갑자기 침대로 와서 남자 여자 성행위 하는 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참여자2)

뭐 그냥 거기서(근무지) 귀를 시도 때도 없이 입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성추행인줄 몰랐어요. 애가 왜 이러지 그냥 이렇게만 하고. 좀 이상한 놈이네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한번은 하도 그냥 침 닿는 게 역겨워 가지고 저는 그 게 역겨워 가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여자6)

- 원하지 않는 음담패설을 함

너 그래도 여자랑 하룻밤은 자야 되지 않겠니? 좀 창녀촌 좀 갔다 오자.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괴롭게 하더라고요. 내가 좀 여자 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를 잘 알면서 계속 열 받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같은 경우는 외박이 있잖아요. 외박이 있는데 그때 나가서 같이 나가서 여자랑 자고 오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진짜 군대에서 살기 싫다. 그러면서 갈구기도 하고, 너는 여자랑 여태까지 안 자보고 뭐 했냐 그러고.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5)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여자친구 있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으니까 있다고 했죠. 근데 있다고 하니까 저보고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갔다고 그랬더니 자고 와야 안 헤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애

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대고 윗사람이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했는데. 한번 자보라고 하고 와야 된다고. 그거는 아직까지도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고. (참여자8)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

본 연구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로 보고된 곳은 생활관, 근무지, 샤워실, 여가시설(사이버지식정보방, 헬스장)이었으며, 이 중 생활관이 8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가 피해를 받았다고 말한 곳이었다.

- 생활관

근데 한두 살 차이나는 선임들이 귀엽다고 볼 꼬집고 이런 정도는 약과고, 무릎에 앉혀놓고 귀엽다고 볼 쓰다듬고 막 무릎에 앉혀놓고 막 안고 TV보고. (참여자9)

성적인 거는 그니까 막 귀여운 애들 들어오잖아요. 동글동글하고 빈약한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막 지 침대에서 재우는. 제 생각에는 진짜 동성애적인 그런 거를 느낀 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좀 반응이 아무래도 사회에 있을 때보다는 저항이 잘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10)

- 근무지

근데 근무지 안에서 저한테 막 눈 감아보래요. 그래서 감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테 막 뽀뽀하고 막 입술에다가. 그래서 그때도 또 막 내색하면 막 때리니까 내색도 못하고 그냥 놀란 척하고. (참여자2)

근데 이제 한 근무지는 근무자가 세 명인데. 장난식으로 이제 호구조사 하듯이 물어봐요 후임 앉혀놓고. 선임 두 명 앉아서 이름이 뭐냐 여자친구 있냐 이러면서 그런 질문 사이에서 있으면은 성적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참여자4)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

압박적인 환경으로 인한 걱정으로 피해사실을 고발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명 중 9명으로 ‘일반적’ 응답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부대 내에서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을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결과이다.

- 피해사실을 고발하지 못함

그 뭐 조사 받고 이런 짜증나는 거는 둘째 치고. 그딴 거 왜 쳐 말해 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 이런 주변의 지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중대장님, 소대장님, 행정정보관님 이런 사람들도. 저 새끼는 입 닥치고 있지 일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뭐 씨 잘났다고. (참여자1)

일단 그때에는 감정을 갖지 말 것. 이거를 강요당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 춥다 이런 말 하면 맞으니까. 아 추워 이러면 맞아요. 아 더워 이러면 맞아요. 감정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웃으면 맞아요. 웃거나 찡그리거나 어떤 표정을 지으면 맞아요. (참여자6)

성폭력 이후의 경험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성폭력 이후의 경험은 군대 내에서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전역 이후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의 2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군대 내에서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항시 전투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군인으로서 전투에 대한 신뢰 부족과 일상생활 및 군 복무에 대한 동기 저하는 치명적이다. 그러나 군대 내 성폭력은 이를 경험한 병사들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갖게 할 수 있고, 불안과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모든 동기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음이 드러났다.

- 피해 직후 수치심이 강하게 들

원하지 않는 포르노. 불법 촬영을 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나를 소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엄청난 수치심 그건 진짜 기분이 안 좋죠. (참여자3)

-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

제가 뭐 사실 다른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해를 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 유아시절의 성폭력이라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아기라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트라우마가 없는데 그게

크면서 나중에 그게 성추행인줄 알면은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아니까 그 행위 하나하나가 더 큰 악, 어려움이 나 분노로 조금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참여자3)

이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저 지옥 같 새끼 그러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 저런 새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참여자5)

- 문제의 재발에 대한 예기불안

아 이 인간이 언제든지 나한테 이럴 수도 있겠다. 한번밖에 안 그랬는데도. 아 이 새끼 언제든지 나를 또 만질 수도 있겠네. 사람이 한번이 어렵지 두 번 하는 거는 쉽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나 단둘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참여자1)

그게 막 누가 날 해칠 것 같다는 두려움보다는 그냥 그런 불쾌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짜증? 짜증 같은 느낌. (참여자3)

전역 이후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전역 이후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범주는 물리적 환경이 변한다고 하여 피해로 인한 문제가 시급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관련된 기억들이 반복

적으로 떠오른다는 응답이 하위범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되었다.

-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관련된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름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이미 지나간 인생이라서 다시 뭐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 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는 거죠 이거는. 억울하고 화나고 지금 개네들한테 가서 뭐 왜 나 이렇게 했냐고 따져보고 싶기도 하고. 전역하고 나서 한 1-2년 동안은 계속 그 억울함과 화가 엄청 심했었죠.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 좀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생각하다보면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여자5)

나중에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게 좋은 생각일 리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문득문득 화가 나는 거죠. 군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5-6년이 지난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적인 자극처럼 문득문득 막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럼 갑자기 화가 나는 거고 뭐 그렇더라고요. (참여자 6)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

참여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3가지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인지적 노력, 행동적인 노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의 영역이다.

인지적 노력

환경을 바꾸기는 어려운 군 생활에서 피해에 대한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극복에 대한 집념을 가졌었다는 응답과 가해자 또는 본인의 전역 날을 희망으로 삼아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버텼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의 참여자에게서 보고되었다. 또한, 피해를 겪은 이후의 부정적인 영향에만 집중하지 않고 아픔을 통한 깨달음을 생각해보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이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건설적인 부분을 되짚어보려는 이성적인 사고의 작용에 가깝다.

-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함

저는 약간 멘탈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1)

군대 안에서 이 정도의 사건을 겪었는데 이보다 더 심한 사건을 겪었어? 이런 마인드로 인해 좀 강해진 느낌? 군대 내에서 이런 것도 이겨내지 못 하면은 안 된다. (참여자2)

저는 또 이제 거기에서 악착같이 살아 남으려고 했던 게 포기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지 않았고. (참여자6)

- 가해자 또는 본인의 전역 날을 희망으로 삼음

아 그냥 생각 안해야지 그 정도? 군대 내에서도 아 생각 안해야지. 내가 그냥

‘군대 안에 있으니까 더 짜증나고 힘든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군대라는 환경이 답답하고 갇혀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갇혀있으니까 그래 전역하면 괜찮을 거야’. 사실 ‘전역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3)

조금 있으면 나간다죠. 조금 있으면 나간다고.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거. 이 사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안 본다. 어차피 여기서나 볼 사람이니까 참자 요정도. (참여자8)

- 아픔을 통해 깨달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나중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날 텐데. 제가 뭐 취업을 해서 사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나중에 정말 큰 일 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비상식적이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도 많을 수 있겠다. 그래 이게 인생경험인가 저는 타산지석 삼으려고. (참여자1)

그냥 뭐 하나 배웠다. 그런 것에 대해 깨었다. 나는 조심해야지. 저런 선임이 되지 말아야지. (참여자4)

행동적 노력

행동적 노력에 있어 주변인과의 대화로 위로를 받았다는 응답은 9명의 참여자에게서 보고되었다. 이는 ‘일반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참여자 대다수의 경험이었다. 그 중에서는

특히 동기와의 대화에서 감정의 해소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지자의 존재가 군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을 알게 된 선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동기와의 대화량은 조금 다른 느낌의 신기하면서 고맙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편으로, 피해자들은 고민과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운동에 집중함으로써 고통의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 주변인과의 대화로 위로를 받음

직속선임들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욕만 하는 거는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거를 느꼈어요. 오히려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가끔씩은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구나. 오히려 그런 거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저 애를 욕해주고 뭐 어떤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던가. 뭐 어쨌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줬으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죠. 저의 감정 회복에. (참여자6)

처음부터 동기들은 힘이 돼주었잖아요. 선임들은 저를 무시해도. 그니까 항상 그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점차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무리 속에서 저의 모습이.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하고 군 생활 내에

서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참여자7)

개인적으로 힘든 게 있거나 하면은 동기들한테 얘기하면 동기들도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많이 풀렸거든요. 동기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이 안 좋으면 동기한테 하거나 부득이하게 동기가 없거나 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8)

- 운동을 열심히 함

운동하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운동하면 또 운동이 힘들어서 짜증나는데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게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 자체가 좋죠. (참여자2)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보면 운동에 또 빠지게 되고. 빠지게 될 때 그럴 때에는 아무래도 생각이 좀 거의 안 나더라구요. (참여자5)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

성폭력을 겪은 고통스러운 감정은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통해 나아지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나아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고한 참여자들은 4명으로 나타났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통이 덜해지는 것을 느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그게 점점 잊혀

졌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참여자2)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탁탁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제가 해코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처음에 강하다가 천천히 줄어들다가 많이 줄어들니까. (참여자7)

논 의

스트레스의 원활한 해소가 어려운 군의 조직적 특성은 군인들의 원초적인 성욕을 자극함으로써 성 담론의 일상화와 성욕의 행위 중심적인 표출을 자극하기도 하였다(장필화, 1999). 그 중 특히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Cernak & Stella, 2015).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대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성폭력을 친밀감이나 장난 등으로 미화시키는 가해자 중심논리가 군 위계의 엄격함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고(권인숙, 2004), 군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지 않으며(강동욱, 2012),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나 부대 내 응집력을 강조하는 군의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2016). 한편으로, 위와 같은 대처의 어려움 속에 군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요하는 질적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성폭력은 개인의 심리적인 역동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면서 또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을 피해자가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연구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QR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CQR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현상을 이해하는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데(Hill et al, 1997), 이는 특정 현상에 대한 경험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의미를 도출하기에 용이하고(Hill, 2016), 참여자들의 시각으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희운,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자료로 하여 그 내용을 성폭력 경험 병사들의 시각으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건들을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 ‘성폭력의 양상’, ‘성폭력 이후의 경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까지 총 4개의 영역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에 맞추어 총 10개의 범주와 38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한 4개 영역과 그에 따른 주요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을 경험한 군부대 내의 환경의 영역에서는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와 ‘권력에 의한 가해행위’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하위범주는 모두 ‘일반적’, ‘전형적’ 결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공통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공간에 있는 것과 피해사실을 말할 경우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다는 보고는 이들 대다수가 느끼는 압박적인 분위기이다. 또한, 가해자가 선임이라는 대다수의 보고는 군대만이 가진 특수한 위계적 시스템이 가해행위의 발생에 촉진적인 역할을 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권위주의적 위

계에 대한 연구(권인숙, 2007)에서는 군 경험에 따라 위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대학 내에서도 달라짐을 확인하였고, 군 유경험자들이 갖는 순번별, 연령별 우위의식이 남성중심성을 강화시켜 폭력이나 성희롱 등 문제의 발생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피지배층은 통제와 억압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계에서 오는 강압적인 문화가 소속감의 형성에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개인이 혼자 외롭게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반대적인 관점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폭력의 양상은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가해자에 의한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은 참여자들이 가장 빈번히 경험한 성폭력의 유형으로 드러났다. 성기를 만지려는 시도나 남녀 간의 성행위 모습의 구현이 그 예이다. 이러한 성폭력을 당했던 참여자들은 ‘억겨움’, ‘수치심’의 단어로 당시의 감정을 대신하였고, 오랜 기간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유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의 피해정도가 심각할수록, 신체접촉이 동반될수록 피해자가 심한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권희경, 장재홍, 2003; 유수진, 2003; Johnson, Pike, & Chard, 2001).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 중 생활관은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던 장소였다. 하지만,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을 보면 10명의 참여자 중 9명은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없었다. 분명 생활관이라는 장소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타인에 의해 신고가 되었을 법한 장소임에도 피해사실 대부분이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

해자가 지각했던 압박적인 분위기에 신뢰를 더해주는 것이면서, 주변인들이 방관자의 입장으로 성폭력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음을 예상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민진(2011)은 군대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위계적 권위주의, 전투적 사고, 폐쇄주의, 집단주의를 지적하였고, 이런 조직의 특성을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윤민재, 2007)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셋째, 성폭력 이후의 경험으로서 ‘군대 내에서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 ‘전역 이후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을 겪은 이후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감정의 격동은 크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가 보고한 수치심, 분노의 감정 이외에도 문제의 재발에 대한 예기불안, 일상에서의 무기력감, 거부감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짐 등이 보고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감정이 개인에게 후유증으로 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폭력 문제의 예방 및 발생 후 조치에 있어서 이러한 감정 변화를 관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압박적인 분위기, 강한 수치심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피해자는 많지 않지만(김지현, 2013), 피해 이후에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모습은 타인에게 보다 쉽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역 이후 경험한 정서와 대인관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관련된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특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 감정과 기억의 정도나 기간은 참여자마다 다르지만, 환경적인 입장이 달라

진 이후에도 피해에 대한 후유증은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의 영역은 ‘인지적 노력’, ‘행동적 노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성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상당부분에서 피해의 치명성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김지혜, 2011) 성폭력을 겪은 이후의 회복이나 적응과정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존재라는 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한인영 외, 2008).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그들의 적응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김동욱, 2017).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노력이나 주체적인 행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제에만 집중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삶의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을 알아보는 것에 특별히 무게를 실었다. 이를 통해 해결 중심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수 있었고,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의 발견과 실질적인 도움 제공에 미흡했던 기존연구의 한계점(신영수, 2016)을 보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비슷한 환경이나 역경에도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개인의 내적, 행위적 반응의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다(이미정 외, 2016).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적응과정’이라는 영역은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박현선, 1998; 신현숙, 2004). 여기에는 분명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있으며,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군 생활의 기간 동안 최대한 적응적으로 기능하고자 애쓰는 몸부림이 보인다. 본 연구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또 공통적으로 시도했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이점을 도출함으로써 피해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선임이나 동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픔 가운데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고, 고통의 감정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 참여자는 대화를 통해 동기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병사들의 무리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으며, 그로 인해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군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선임이 인간적인 위로와 진심어린 조언을 해줄 때 후임으로서 피해자가 얻게 되는 자아존중감, 인간에 대한 신뢰감의 회복은 더욱 확실해 보였다. 병영생활의 적응이 다른 무엇보다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라고 보았을 때 (Stauffer, Suchman, Devinney, Star, & Williams, 1949),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나 상호작용은 더 큰 심리적 고통과 연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Ullman, 1996; Ullman, Townsend, Filipas, & Starzynski, 2007), 이렇듯 믿을 만한 사람과의 대화는 병영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성학대 피해자들이 주변인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 우울, 불안, 행동문제 등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유능감과 적응유연성의 점수가 높았다는 연구결과(Cowen & Work, 1998; Spaccarelli & Kim, 1995)도 있다.

Lazarus는 피해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피해로 인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지적 평가로 인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Lazarus & Folkman, 2001). 인지적 평가, 즉 인지적 대처는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낙천주의적 사고방식, 긍정적인 경험으로 재해석하기, 피해에 대한 생각 중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등이 있고, 이러한 생각들로 삶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ffey, Leitenberg, Henning, Turner, & Bennett, 1996; DiPalma, 1994; Oaksford & Frude, 2003; 변혜정 외, 2005). 따라서 군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피해자들이 어떠한 인지적 대처를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그들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가치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인지적 노력 중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작용한 결과로, 이런 생각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인지적 대처인 동시에 고통의 증폭을 막는 적극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인지적 대처의 전략 중 긍정적인 경험으로 재해석하기를 실천했던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한 참여자는 타인으로부터 온 아픔을 타산지석 삼아 이상적일 수만은 없는 대인관계의 현실을 느꼈다고 보고하였고, 자기중심적인 언행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인 사고, 감정, 행동의 연결 선상에서 사고에 해당되는 인지를 적응적인 방향으로 다루어주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및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의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행동적인 노력에서는 ‘주변인과의 대화로 위로를 받았다’는 가장 일반적이었던 응답과 더불어

어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응답이 참여자 중 절반에서 나왔다. 이들은 피해 이후에 밀려오는 반복적인 침투 사고와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운동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운동을 하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각이 사라졌으며, 다 정리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체활동으로 이런 긍정적인 작용이 가능했다는 보고는, 극적인 환경에서와 피해 직후에는 이성적인 판단만으로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의 꼬리 물기를 끊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성적인 사고의 양이 다소 줄어들면서 본능과 습관에 의해 움직이는 운동에 집중하게 될 때 ‘전환’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결과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해의 고통이 경감되었다는 것이다. 절반에 가까운 참여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통이 덜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참여자들은 특별한 노력이 없었음에도 신기하게 아픔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잊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에 대한 사실여부까지 망각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극적으로 치달았던 고통스러웠던 감정에서는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이라는 것이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기보다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바이면서(Banyard & Williams, 2007), 회복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Burt & Katz, 1988) 이라면 그러한 상태가 됨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상담에의 함의점 및 함께 고민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군대 내에서 발생되었던 성폭

력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러한 실태와 경험, 극복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일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을 상담할 때, 먼저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 중 하나인 권력의 위계구조와 그에 따른 부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이를 겪은 병사 당사자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성폭력을 목격한 주변 병사들에게는 신고의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당연시되는 군 문화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전역 이후에도 이러한 군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수월하게 제기할 수 있는 창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겪은 병사들은 전역 이전과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치심, 분노, 무기력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군대 내에서 이들이 경험하였을 정서적 고통을 다뤄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군대 내에서의 적절한 위기 개입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 상담병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 상담병 제도가 보급된 이후 그 실효성이 다방면으로 인정되는 바이나, 군대 내 성폭력과 같은 ‘부대 내 권력’의 특성이 부각되는 문제에 대하여 병사들이 군대 내 상담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성폭력 피해의 아픔 속에서도 당시 군 상담 의뢰를 떠올리지 못하였고, 절반 정도의 참여자들은 군대 내 상담의 비밀보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

유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군대에서는 이러한 군 상담병 제도에 대해 병사들이 갖는 신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들이 갖는 불신감이 실제적인 제도상의 문제라면 이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군 상담병 제도 외에, 부대 내에서 함께 지내는 병사들 가운데 ‘병사 상담관’ 역할을 담당할 병사들을 뽑는 방향 또한 제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병사 상담관들의 대화기술이나 정서적인 공감능력의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병사들과 함께 군 복무를 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문제 완화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하위범주 중 하나로 도출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빈번한 환경에서 병사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적, 언어적 폭력은 피해 사실이 눈으로 직접 확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폐해가 간과되어 왔기에(박경은, 유영권, 2017) 병사 상담관들의 역할은 더욱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되었던 성폭력 문제의 양상과 피해자들이 느꼈던 정서와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을 밝혔고, 피해자들이 직접 시도하고 겪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군 생활의 적응과정들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 중 피해자들이 고통의 극복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전환하려는 인지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과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내면의 힘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결과가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접하는 환경과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10명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연구 결과들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각하고 경험한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었다. 또한, 전역자의 과거경험을 자료로 추출했기 때문에 군에서 피해를 받은 그 당시의 다양한 경험들을 탐색하기에 다소 미흡했을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보고를 중심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당시에 참여자들이 머물렀던 군부대의 상황이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군의 개선사항 및 변화요인들을 모두 다룰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 강동욱 (2012). 군 성폭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수연 (2001).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부산시내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홍월, 권경인, 김계현, 김성희, 김재철, 김형수, 서영석, 이형국, 탁진국, 황재규 (2013). 상담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136-139.
- 곽용철 (2007). 군 내 성희롱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인숙 (2004).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과 남성성: 공론화되지 않은 원인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1(1), 3-35.
- 권인숙 (2007). 한국 대학의 권위주의적 위계와 성차별적 젠더 문화: 군사화된 실태 파악과 그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12-24.
- 권희경, 장재홍 (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51-566.
- 김경희, 권혜진, 정혜경 (2004). 남자 청소년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한국간호과학회, 34(6), 954-963.
- 김기인, 김선옥, 노수진, 도진희, 배지혜, 윤지현, 이민희, 정미현, 최선아, 하소영 (2010). 일부 육군사병의 성 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44, 31-46.
- 김동욱 (2017). 청소년 성폭력의 취약성과 탄력성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정논총, 1, 35-54.
- 김선아 (2002).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현 (2010). 군 입대 전·후의 성 의식 및 태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3, 11, 6).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군 성범죄. 주간한국. <http://weekly.hankooki.com/lpage/sisa/201311/wk20131106110715121390.htm> 에서 검색.
- 김지혜 (2011). 아동기 성폭력 경험의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래, 이혜원 (2006). 일부 육군사병의 성 지식 수준과 성교육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8, 77-104.
- 민진 (2011).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8(3), 91-121.

- 박가람 (2008).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지각한 도움경험(Helpful Experience):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61-182.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성미 (2002).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혜정, 조중신, 현혜순, 김지혜, 권수현, 권혜수, 정유석, 김혜정, 정희진, 정유희, 김애라 (2005).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손기화 (2012). 군 성폭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승희 (2019). 집단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집단 수퍼비전의 도움 거함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8(1), 115-137.
- 신영수 (2016). 후기청소년의 군 생활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CQR)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04). 가정환경 역경에 적응 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1), 141-161.
- 오봉욱 (2014, a).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동성에 의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4, 109-131.
- 오봉욱 (2014, b). 정신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 교정복지연구, 33, 167-189.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수진 (2003). 아동기 성학대가 여대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민재 (2007).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의문사형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2007.12, 1113-1128.
- 윤종영 (2009).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한 군(軍)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17, 23-38.
- 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2016).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원숙 (2001). 성폭력과 사회복지. 경기: 강남대학교 출판부.
- 이희운 (2017).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한 동거자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희 (2006). 군인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필화 (1999). 여성/몸/성.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조경철 (2018, 10, 24). 군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군사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내외뉴스통신.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36> 에서 검색.
- 주승희 (2015). 군대 내 성희롱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45, 581-616.
- 채규만, 정민철 (2004). 한국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869-886.

- 천대윤 (1999). 성희롱 정책(이론과 실제). 경기: 도서출판 선학사.
- 최혜란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4). 모집병 입영 현황. <http://www.kostat.go.kr> 에서 검색.
- 통계청 (2018).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새 165%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9955111> 에서 검색.
- 한노을 (2008).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김진숙, 김선민 (2008). 청소년 성폭력 경험자의 현상학적 연구: 시선으로부터 살아남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385-417.
- 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2008). 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험. *피해자학 연구*, 16(1), 153-175.
- Banyard, V. L. & Williams, L. M. (2007). Women's voices on recovery: A multi-method study of complexity of recovery from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31(3), 275-290.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 Briere, J. & Runtz, M. (1987). Post sexual abuse trauma: Data and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367-379.
- Burt, M., & Katz, B. L. (1988). Coping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nnals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 345-358.
- Cernak & Stella. (2015). Sexual assault and rape in the military: The invisible victims of international gender crimes at the front lines. *Michigan Journal of Gender and Law*, 22(1), 207-241.
- Coffey, P., Leitenberg, H., Henning, K., Turner, T., & Bennett, R. (1996). Mediators of the long-term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Perceived stigma, betrayal, powerlessness, and self-blame. *Child Abuse & Neglect*, 20(5), 447-455.
- Cowen, E. L., & Work, W. C. (1998). Resilient children, psychological wellness, and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4), 591-607.
- DiPalma, L. M. (1994). Patterns of coping and characteristics of high-functioning incest survivor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8(2), 82-90.
- Estabrooks. C. A., Field, P. A., & Morse, J. B. (1994). Aggregating qualitative findings: An approach to theory development. *Qualitative Health Research*, 4(4), 503-511.
- Finkelhor, D. & Browne, A. (1985).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4), 530-541.
-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David McKay Co.
- Herman, J. (2007). 외상 (최현정 역). 서울: 플래닛.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 현상탐구의 실질적 접근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2년에 출판).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 Johnson, D. M., Pike, J. L., & Chard, K. M. (2001). Factors predicting PTSD, depression, and dissociative severity in female treatment-seeking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Child Abuse & Neglect*, 25(1), 179-198.
- Lazarus, R. R., & Folkman, S. (200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김정희 역). 서울: 대광문화사. (원전은 1984년에 출판).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cDonald, K., Lambie, I., & Simmons, L. (1995). *Counseling for sexual abus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Oaksford, K. & Frude, N. (2003). The process of coping following child sexual abuse: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2(2), 41-72.
- Suzanne, M., Sgori, M. D. (1982).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 child sexual abuse. In S. M. Sgori, L. C. Blick., & F. S. Porter. (Eds.), *A conceptual framework for child sexual abuse* (PP. 9-37). New York, NY: The Free Press.
- Spaccarelli, S., & Kim. (1995). Resilience criteri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 Neglect*, 19(9), 1171-1182.
- Sta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Williams, R. M. (1949). *The american soldiers: Adjustment during army life*. Oxford, England: Princeton Univ. Press.
- Ullman, S. E. (1996).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adult sexual assault disclos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4), 554-571.
- Ullman, S. E., Townsend, S. M., Filipas, H. H., & Starzynski, L. L. (2007). Structural models of the relations of assault severity,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elf-blame, and PTSD among sexual assault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23-37.
- Wright, M. O., Crawford, E., & Sebastian, K. (2007). Positive resolution of childhood sexual abuse experiences: The role of coping, benefit-finding and meaning-mak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7), 597-608.

원 고 접 수 일 : 2019. 05.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7. 22

게재결정일 : 2019. 10. 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Soldiers Who Experienced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Dong-Kwang Seo

Hanyang University / Student

Jung-Hee Ha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soldiers affected by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ten discharged soldiers who had experienced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and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analysis metho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ough semi-structured questions focusing on sexual violence-related difficulties, emotions and relationships experienced in the military, emotions and relationships experienced after discharge, efforts to recover from trauma, and the adaptation process. Four domains were derived, including 'atmosphere where it is difficult to report sexual violence,' 'aspects of sexual violence,' 'feeling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ter sexual violence,' and 'efforts and adaptation process for recovery from trauma,' which we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and 38 subcatego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including prevention and mitigation measures, are discussed.

Key words : military, sexual violence, experiences, adaptation proces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